

[H 갤러리]

**SEPTEMBER COLLECTION**

**9. 1. – 9. 30.**

**PHILIP. HAN.**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9. 3. 토. 1929 년 작품.



에펠탑, La Tour Eiffel. 1200p x 840 x1024

canadianart.ca/news

2018년 National Gallery Canada는 이 작품 '에펠탑'을 뉴욕 옥션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은 당시 퀘벡 주 한 성당 소유의 Jacques-Louise David's Saint Jerome 작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발표가 나자마자 캐나다가 들끓었다. 비난이 쇄도했고, 사갈 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희대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NGC 이틀만에 '에펠탑' 판매 결정을 철회했다.

목동서로는 어느새 노을이 깔리고 있었다. 붉은 포도주가 흰 천으로 사부작사부작 스며든다고 할까. 거의 같은 속도로 한 사람 두 사람이 걸음을 멈췄다. 건너편 빨간 신호등 밑도 마찬가지로였다. 잘 차려 입은 젊은 여성 둘은 옷 매무새를 서로 살폈다. 스커트를 한 뼘 더 끌어 올린 학생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스케이트보드 발판에 한 발을 올려 놓고 준비 자세인 학생 신발도 슬리퍼였다. 쇼핑백 두서너 개를 든 중년 여인은 물건 잘 샀다고 통화하며 파란불을 기다렸다. 영수증을 보던 애 엄마는 뒤돌아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 노 부인 한 분이 허리를 잡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밥 때를 앞둔 분주함과 발랄함이 횡단보도를 두고 저녁 연기를 피우고 있다.



##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 9. 7. 수. 1973 년 작품.



생 폴드 방스 정원, Les Jardins de Saint Paul. The Garden of Saint Paul. 1973.

생 폴드 방스의 정원 · Les Jardins de Saint Paul · The Garden of Saint Paul. 1973 년 작품이다. 당시 샤갈 나이 86 세, 노익장을 과시했다. 노익장의 대명사 데이비드 호크니도 그림으로 아직 닿지 못한 나이다(현재 85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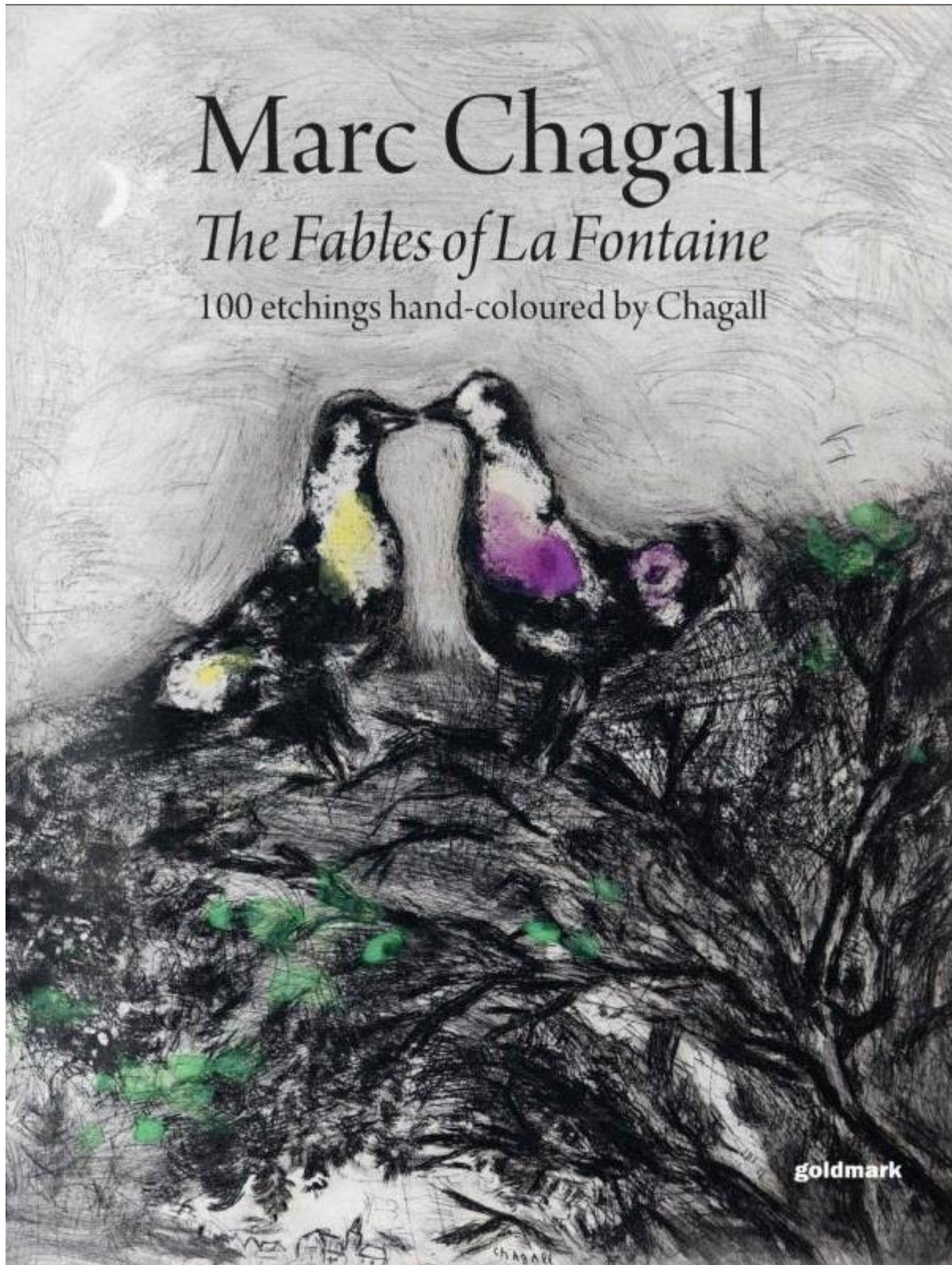
이 작품은 2021 년 K 옥션 5 월 경매에서 42 억 원에 낙찰됐다고 한다. 경매 전 작품 설명에서 K 옥션은 '생 폴드 방스에 머문 1950 년 대 부터 샤갈 작품 속 꽃은 장식 성격에서 벗어나 독립 모티브로 사용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독립 모티브로서의 꽃이라면,

'우리 인생과 예술에 진정한 의미를 갖는 단 하나의 색은 사랑의 색이다.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생 폴드 방스 정원의 꽃 한 송이 한송이 캔버스로 화병에 꽂으면서 샤갈은 이 말을 흥얼거렸을 것이다. 꽃은 의미이고, 사랑의 색이고, 자신은 예술가이기에.....



## Epilog



The Fables of La Fontaine. 2011. Goldmark gallery.

샤갈이 우화 집에 삽화를 그렸다. 회화는 아니고 판화이다. 1927 년 출판업자 발로드가 샤갈을 찾아왔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라퐁텐 우화'에 넣을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이었다. 라퐁텐(Jean de La Fontaine, 1621 - 1695)은 17 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시인 겸 동화 작가이다. 그의 대표 작인 '라퐁텐 우화'는 총 12 권 124 편으로 이솝 우화는 늘 비교 대상이다.

동물을 의인화한 점은 비슷하지만 세태 풍자가 이솝 보다는 좀 센 편이라고 한다. 한데 놀라운 점은 이런 이 우화집을 당시 루이 14 세 여섯 살 손자(추정컨대 프리 도팽 루이, 1682 - 1712, 29 세 때 사망)에게 헌정했다고 한다. 게다가 프랑스 초등학생은 이 우화집을 필독서로 읽는다고 한다. 여튼간에 샤갈은 이 우화 집에 그림을 그렸다.

라퐁텐 우화 집은 세 갈래가 있다. 첫 번째는 흑백의 동판화, 두 번째는 다색판화로 옹기기로 하고 과슈(Gouache)에 그린 그림, 마지막 세 번째는 다색판화 출판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려고 색연필로 흑백판화에 색을 입힌 것이다. 2018 년 국내 전시 '마르크 샤갈 특별전 - 영혼의 정원展'에 바로 세 번째 형태의 작품이 선 보였다고 했다. 흑백판화에 색연필을 붓 삼아 붓질한 그림이 궁금했다.

Goldmark 갤러리는 영국 상업 갤러리이다. 이 갤러리에서 라퐁텐 우화에 수록한 샤갈 그림 100 편을 수록한 카탈로그를 발간했다( [https://issuu.com/powershift/docs/chagall\\_fables](https://issuu.com/powershift/docs/chagall_fables) ) 판매 목적에 충실하게 각 작품 가격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글을 멈출 수 없었다. 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포르투갈 여행 기록을 남긴 한 브런치( <https://brunch.co.kr/@egg0001/39> ) 작가께서 라퐁텐 우화를 '아줄레주: 포르투갈 특유의 타일 방식 그림'로 완성한 작품을 소개했다. 샤갈 작품과 비교하면서 그림 감상을 하면 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 10 월은 그 시간을 탐해보려고 한다. 책을 낸다면 '라퐁텐 우화와 샤갈과 그리고 나' 정도쯤......

[H갤러리]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작가 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10월입니다. 시월 마지막 날은 아낌없이 10월 하루하루를 보낸 기억을 나누고 보듬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